

주한미군 기지 정치(Base Politics) 연구에 대한 검토*

김미덕**

| 목 차 |

I. 서론	III. 국내에서의 논의
II. 미국 학계에서의 논의	1. (명명의 정치를 통해 본) 대중적 인식과 반미 민족주의 정서
1. 기지 정치	2. 저항 문제와 캠프타운 여성의 지식 생산자로서의 등장
2. 군사주의와 젠더: 신시아 인로	IV. 요약 및 결론
3. 한국 기지 정치 사례 연구: 캐서린 문	

| 논문요약 |

이 글은 주한미군 기지와 캠프타운을 둘러싼 기지 정치(base politics)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 사회과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래 해외 미군 기지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피주둔국과 주둔국 간의 관계를 다룬 기지 정치 연구가 대두되었다. 군사주의와 젠더의 관점에서는 정치학자 신시아 인로(Cynthia Enloe)의 연구와 캐서린 문(Katharine Moon)의 한국 기지 정치 사례 연구가 선구적이다. 이들은 미군 주둔 및 관리는 양측 행위자의 교섭의 정치이며, 기지 주변 성 산업은 남성 군인의 본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 정치의 산물이라는 것을 밝혔다.

한국 사회에서는 1945년 이래 피주둔국의 입장에서 주권 문제, 기지 주변 공동체, 성 산업, 아메라시안, 미군 범죄 등의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었다. 기지에 대한 입장은 무관심, 안보의 이유로 미군 주둔이 필연적이고 성 산업은 필요악이라는 생각, 반미 민족주의 정서, 여성주의 시각 등 여러 스펙트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413-H00001).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럼이 존재한다. 1990년대 반미운동 관점에서 민족주의 정서가 팽배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캠프타운 형성·유지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역할이 대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더불어 학계 연구자의 인터뷰나 구술생애사 분석 및 증언, 자서전 등으로 캠프타운 여성들이 지식생산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한 것과 캠프타운에 대한 공간학적 연구의 증가가 눈에 띈다. 이 글은 미군 기지와 캠프타운 여성을 둘러싼, 경합하는 지식들을 살펴봄으로써 지식의 주관성과 역사성을 살피고 있다.

· 주제어: 주한미군 기지, 캠프타운 여성, 기지 정치, 신시아 인로, 지식의 주관성

I. 서론

주한미군과 캠프타운에 대한 문제는 누가, 누구를 청중으로, 어떤 쟁점을 다루냐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과학계에서 해외 주둔군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군사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소수의 군 관계자나 관련자만이 관심을 가진 수준이었다. 그런데 2000대 초반 이래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미국 해외 정책의 제국주의 논쟁이 확산되면서(Kelly 2003; Lutz 2006; Bachevich 2003)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Calder 2007; Cooley 2008; Harkavy 2005). 영어권 여성주의 학계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래 군사주의와 젠더의 관점에서 캠프타운 성 산업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Enloe 1983; 1990; 2000; Sturdevant and Stoltzfus 1992; K. Moon 1997; 1998; Höhn and Moon 2010). 한편 피주둔국 중의 하나인 한국 사회에서 미군 기지는 오랫동안 여러 수위에서 논의되어 왔다. 피주둔국에서 외국군의 주둔은 국가 주권의 문제에서부터 직접적인 피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적으로는 북한의 잠재적 위협 때문에 미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고 군대 주변의 성 산업은 필요악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반미 성향의 민족주의 정서, 그리고

성 산업 관련 여성들이 처한 어려움에 민감한 여성주의 시각이 존재한다. 시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주제에 대해 처음 논의가 시작된 1940년-50년대와 2000년대의 지적 지형은 크게 달라졌다. 물리적 상황의 변화가 뒷받침된 것인데, 주둔한 미군의 규모가 변화하고 1990년대 중반 이래 캠프타운에서의 성 산업 인력이 이주노동 여성들로 대체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안태운 2012; 두레방 2007; 백재희 2000; Seol 2004). 그리고 주제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2000년대 중반 이래 자서전, 증언, 구술생애사를 통해 여성들이 스스로 발화함으로써 지식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연자 2005; 김정자·김현선 2013; 최현숙 2013).

이 글의 목적은 지식생산의 주체, 방법, 쟁점을 염두에 두고 미군 기지 정치에 대한 연구·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누가, 어떤 시각과 쟁점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경합하는 지식들의 정치적 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사회과학계에서의 논의 또한 살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둔국의 입장과 피주둔 국가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관점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 지적 지형을 형성하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여러 매체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지 정치(base politics)’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위의 논의가 가속화된 시점인 2000년대 이후의 정치학, 여성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반미운동 및 민족주의 양상을 기점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부각된 1990년대 이후의 지적 지형 및 대중적 사회 담론을 살펴본다. 검토한 매체는 신문기사, 학술연구 논문, 방송 프로그램, 구술생애사·자서전 등이다. 신문기사는 필자(2009)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수행했던 것으로 1945년부터 2006년까지 세 일간지(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를 ‘기지촌’을 주제로 검색했다. 한국어 자료는 짧은 르뽀 기사에서부터 학술연구 논문에 이르기까지 주제와 시기의 스펙트럼이 방대하기 때문에 쟁점을 중심으로 중범위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 중범위 수준이라는 표현은 각 주제에 대한 깊은 천착보다는 필자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중요한 사안을 중간 수위의 검토

로 정리한다는 의미다. 쟁점은 피주둔국에서 제기된 반미 민족주의 정서와 여성주의 학계, 특히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로 집약했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캠프타운에 대한 미국 사회과학계의 지적 지형을 살피고 있다. 2000년대 이래 전개된 기지 정치 연구를 살펴보고 군사주의의 젠더의 관계에 대한 선구적 연구를 수행한 정치학자 신시아 인로(Cynthia Enloe)를 포함한 여성주의 논의를 정리한다. III장에서는 국내에서의 논의를 살핀다. 무관심으로부터 반미 민족주의 시각, 그리고 여성주의 학계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운동 관점의 민족주의 정서가 팽배했던 1990년대와 달리 2000년대는 캠프타운에 대한 양 정부의 체계적 역할이 규명되고 이론적 논의와 역사적 증거가 뒷받침되었다. 그리고 여성주의 학계에서는 캠프타운에서 일했던 여성 주체의 지식생산 참여가 눈에 띈다. IV장은 요약으로서 글을 마무리한다.

아시아 국가에 주둔한 미군과 주변 공동체, 그리고 그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많은 신화가 존재하고 재생산된다. 라이트(Wright)는 ‘대체가능한 일회성’의 제3세계 여성노동자라는 담론이, 어떻게 담론 자체, 공장 내부의 관리자, 그리고 여성 노동자가 상호작용하여 물질화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신화는 신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적 장에서 신화를 담지하는 이들에게 체현됨으로써 위계와 폭력을 자연화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Wright 2006). 그 이유는 신화 자체가 신화를 만드는 정치적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해외 미군 기지를 둘러싸고, 어떤 쟁점이 어떤 장에서 생산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특정 지식의 주관성과 역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글은 필자의 연구(김미덕 2007; 2013b; Kim 2009)를 포함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문헌연구이다. 그러나 기존 문헌을 단순히 정리하기보다 필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기존에 간과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점검하면서 지적 지형을 살펴보고자 한다.¹⁾

1)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에 대한 지적 계보를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기존에 발표된 연구들이 일부 인용·정리되어 있다.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Nationalist Nationalism and Everyday Subversions: Korean Women and Military Men in U.S. Camp Towns*(2009)이다. 중심 주제는 캠프타운 여성의 생활과 삶에 대한 인식으로, 현장조사 연구와 문헌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2007년 캠프타운에 대한 한국문학 작품을 분석하면서 대중적 인식, 민족주의

II. 미국 학계에서의 논의

1. 기지 정치

앞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미국 학계에서 해외 주둔군에 대한 관심은 주로 군사학이나 안보 관련 연구자에 국한되어 내용이나 연구의 수위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미군 기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드물었다. 그런데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 해외 정책이 신제국주의(American Empire)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Lutz 2006; 2009; Bacevich 2003; Kelly 2003) 해외 주둔군에 대한 논의 또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기지에 대한 연구들에 이어(Blaker 1990) 2000년대 이래 관련 저서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산다스 크리스토퍼(Sandars Christopher T. 2000), 애니 베이커(Anni P. Baker 2004), 켄트 캘더(Kent E. Calder 2007), 캐더린 루츠(Catherine Lutz 2009), 로버트 하카비(Robert Harkavy 2005), 알렉산더 쿨리(Alexander Cooley 2008), 로드리구에즈와 글레보브(Rodriguez and Glebov 2009)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해외 주둔 미군 기지에 대한 기술 작업(Blaker 1990; Harkavy 2005)과 함께 기지 형성 및 관리에 대한 상관관계를 설명하려고 했다. ‘기지 정치’는 “피주둔 국가의 군사 시설의 상태와 작동에 대한 주둔국과 피주둔국 간의 상호관계·작용”을 뜻하며(Calder 2007, 65), 이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흐름이 있다. 하나는 기지 정치를 이론화하고 설명하려는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피주둔국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서 일본과 한국 전문가인 캘더의 Embattled

시각과 여성주의 시각을 설명했다. 그 분석의 틀이 III장 1절에서 적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그와 같은 시각의 패러다임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명명의 정치’를 통해 대중적인 정서를, 그리고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로 변화된 민족주의 시각의 특징을 설명하여 2007년 연구와 구별했다. 그리고 주변부 사회그룹의 행위성을 설명한 학위논문 5장이 출판되었는데(2013b), 증언과 구술생애를 통해 캠프타운 여성 주체의 지식생산 참여를 설명한 III장 2절에서 간략하게 언급되었다. 미국 학계의 기지 정치 및 신시아 인로에 대한 논의는 새롭게 쓴 것이고 한국 기지 정치 사례연구는 박사학위 논문 2장에서 설명된 바 있다.

Garrisons: Comparative Base Politics and American Globalism(2007)이 있다. 그는 기지 형성과 철수의 검증가능한 일반화를 도출하기 위해 설명 변수를 개발하고 정책 제언을 하고자 했다(Calder 2007, 2). 구체적으로 캘더는 해외 주둔 미군 기지를 보상 정치(compensation politics), 강압 정치(fiat politics), 협상 정치(bazaar politics), 그리고 감정 정치(affective politics) 네 유형으로 나누었다. 분류의 기준은 피주둔국 지도자들이 기지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강압적 방법을 사용했는가 아니면 물질적 보상을 활용했는가이다. 예컨대 일본은 반대자들에게 물질적 보상이 잘 이뤄졌으며 지역·군·정부 간의 조율을 가능케 했던 방위시설 관리부(The Defense Facilities Administration Agency, DFAA)를 통해 보상 정치를 제도화했다. 그리고 필리핀처럼, 국제/미군의 영향이 크고 군대와 같은 특정그룹에게는 보상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제도정치가 불안정하고 내부의 소요가 적지 않아 강압 또한 시행되면서 과거 중동에서 시행되었던 상업적 교섭이 중요한 특징인 협상 정치가 두드러진 곳도 있다. 이 유형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일종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압 정치가 이루어진 예로는 박정희 시기(1961-1979, 1993년 노태우 시기까지 언급)와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프랑코 시기(Francisco Franco 1953-1975)를 들고 있다. 강압 정치는 독재정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권력 분배, 내부의 정당성, 외부 지원 등이 모두 중앙집권적인 국가 기구(군)에 귀속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 약한 시민사회, 강한 군대를 특징으로 꼽았다. 감정 정치는 이슬람 문화가 강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개되었는데 피주둔국의 전통, 문화, 종교가 작동하여 미군(외국인) 존재가 비가시적이었던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포스트 소련 정치 연구자인 쿨리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미군에 놀라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는 양 국가의 기지 조약이 언제, 어떤 이유로 피주둔국에서 허용되고 혹은 도전받을까를 질문했다. 중요 변수로서 외부의 위협, 기지 수와 군대의 규모, 기지의 기능과 효용, 여론을 한 축으로, 그리고 국내의 제도적 변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들고 있다(Cooley 2008, 26). 한국의 경우 이승만과 박정희 시기에는 안보와 내부의 정치경제적 이익 때문에 미군의 존재와 협약을

적극 활용하지만, 1992년 김영삼 정부 이래 민주화됨에 따라 이것의 활용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탈정치화를 경험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들이 유의미한 것은 해외 주둔 미군의 역사와 정치적 상황 등에 대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피주둔국과 어떠한 관계에서 기지가 설립·관리되고 유지되는가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Calder 2007; Sandars 2000; Cooley 2008).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연구 경향과 달리 ‘피주둔국이 행위 주체’로 등장했다는 것 또한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위해 피주둔 국가의 역사와 내적 동학이 지나치게 단순화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기지 정치는 양 국가의 관계와 역학을 기본 전제로 분석하고 있는데 피주둔국에 대한 서술에서 국내의 동학과 정부 단위 이외의 국내 행위자들의 경험이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 먼저 캘더의 연구에서 강압 정치의 예로 박정희 시기를 들고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듯 하지만, 그 기준으로 언급된 국가보안법, 약한 시민사회는 비단 미군 기지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즉 캘더는 그 당시 국가보안법에 의해 많은 대학생들이 전과가 남게 되었고 이후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이 미군 기지의 관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재하다. 민주화를 기준으로 기지의 존속과 변화를 연구한 쿨리의 연구도, 민주화 정도를 기준으로 각 정부의 정당성 유지를 위해 미국과의 이해관계를 활용할 가치가 높아졌거나 낮아졌다는 광범위한 언술을 사용하고 있다. 방법과 내용 면에서 피상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고 인과적 설명을 위해 피주둔국의 역사가 단순화 혹은 왜곡된 문제가 있다. 이들의 연구는 상관관계를 ‘과학’으로 인식하는 주류 사회과학 연구의 특징/한계이자 일 국가(피주둔국) 내부에 대한 자세한 고찰보다는 국가 정체만 서술하는 ‘방법론적 민족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Chong 2007, 213-214; 김미덕 2011, 133) 양상을 띠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위로부터의 시각이 피주둔국에서 기지 정치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아래로부터의 연구를 강조한 연구들 또한 등장했

다(Lutz 2006). 주체가 미국/미군이 아닌 피주둔국의 역사와 정치적 입장이며 미군 기지가 피주둔국에 끼치는 영향, 반 미군기지운동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Lutz 2009; McCaffrey 2002; Vine 2009; Rodriguez and Glebov 2009). 여성주의 학계의 논의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는 아래 절에서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류학자 캐더린 루츠(Catherine Lutz)가 편집한 *The Base of Empire: the Global Struggle against U.S. Military Posts*(2009)는 각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저항운동에 대한 논문을 편집한 책으로, 피주둔 국가에서의 미군 기지의 역사를 살피면서 저항운동의 맥락을 살피고 있다. 예컨대 맥카프레이(McCaffrey)는 60년간 해군 기지가 설치되었던 푸에르토 리코(Puerto Rico)에서 소규모의 반 기지운동이 소연방 해체를 계기로 대중화되면서 미군 철수가 성공한 과정을 설명하였다(McCaffrey 2002). 바인(Vine)의 *Island of Shame*(2009)은 중남미에 위치한 디에고 그라시아(Diego Gracia)의 미군 주둔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군 관계자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미군 기지의 제국주의적 속성(원주민 공동체의 파괴, 저항 역사)을 지적하고자 했다(Vine 2009). 이 연구들은 이론 혹은 인과적 설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주둔국의 시각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위로부터의 시각과는 다르고 피주둔국 내부의 입장과 현실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가 외국군 캠프타운의 성 산업의 문제에 주목한 여성주의 학계이다.

2. 군사주의와 젠더: 신시아 인로

1990년대 중반 이래 기지 정치를 군사주의와 젠더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 사례도 예외가 아닌데 1990년대 이래 영어로 쓰인 캠프타운의 한국 여성들에 대한 연구가 박사학위 논문에서부터 일반 저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출판되었다(Yoo 1993; K. Moon 1997; 1998; Lee 2006; Kim 2009; Höhn and Moon 2010).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모두 강조점이 다르지만 캠프타운 여성의 삶에 주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캠프타운 성 산업 문제의 이론적 자원이자 배경인 ‘군

사주의와 젠더'의 문제에 대해 필수적으로 언급해야 하는 이가 미국 클락 대학(Clark University)의 정치학자 신시아 인로이다. 그녀의 주요 저서로는 *Does Khaki Become You? the Militarization of Women's Lives*(1983), *Bananas, Beaches, and Bases: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1990), 그리고 한국 사례가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된 *Maneuver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Militarizing Women's Lives*(2000)가 있다. 인로의 연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사회과학계에서 군대 문제는 외부 연구자(특히 여성 연구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미개척 분야로서 기지 정치가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뤄진 것임을 밝히고 군사주의의 젠더화된(gendered) 속성에 대해 선구적인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인로는 아버지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으로 복무했고 이때 가정을 돌보았던 어머니의 삶에 대한 추적을 통해 군사주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기록한 바 있다(Enloe 1983, v). 그녀는 몇몇 저서를 통해 여러 수위에서 활동하는 군사화된 여성을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군사주의는 (남성들의)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역에 제도화되어 있다. “군사화는 제도적·경제적 변화와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군사화를 살피려면... 예산과 관료적 미사여구를 읽는 능력에서부터 결혼, 영웅 추대, 영화적 상상, (상업화된) 성 경제의 역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Enloe 2000, 11). 2) 군사주의는 여성 군인, 간호사, 전쟁 시 캠프 종군자, 군인의 아내, 기지 내·외부에 존재하는 위안자로서의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다. 군사화 과정은 여성성과 구별되는 남성성을 기반하고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애국적인 어머니상이 이상화된(Enloe 2000, 11; 1983). 그리고 군사화된 여성은 남성의 사기를 북돋고 위안을 주고 다음 세대의 군인을 재생산하다. 또한 군인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의 상징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남성 군인의 수요가 적을 때 남성을 대체하기도 한다(Enloe 2000). 3) 미군 기지 주변 성 산업은 남성 군인의 본능이라는 담론 속에서 자연화되어 있지만 이는 주체들의 성적 정치의 결과이다. 군대와 성 산업이 주체 간 협상 결

과라는 대표적 예로, 1990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에 30만 미군(90퍼센트가 남성)이 주둔할 당시 양 국가가 주변에 성매매를 금지시키기로 한 사건을 들고 있다(Enloe 2000, 72). 이러한 인로의 주장은 현 여성주의 학계에서는 상식에 가깝지만 군대와 군사주의를 풍부한 역사적 자료와 비교를 통해 접근한 연구가 전무했기 때문에 그녀의 연구는 이후 학계 및 대중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적 지형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역사적 자료를 발굴한 측면에서나 군사주의와 젠더의 관계에 대한 분석의 측면에서도 매우 귀중하고 선구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점검해야 하는 부분은 군사화된 여성들의 재현과 저항 문제에 대한 그녀의 인식이다. 이는 국제정치 분야에서의 정치 민족지를 검토한 브래스티(Vrasti)가 이미 잘 지적했다. 브래스티는 인로의 연구를 군사주의와 미군 기지가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민족지(인류학적 연구)의 현황과 의의를 살피는 데서 언급하고 있는데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인로의 연구가 군사화된) 여성들의 삶에 대한 그토록 풍부하고 화려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여성들이 ‘살아있다’고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대체로 여성 억압의 상징적인 재현으로 남아 있다. 조용한 그들의 존재는 텍스트를 통해 인로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였다... 결과는 여성주의운동의 주장과 정체성에 기반한 저항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구성된 텍스트가 남아있다. 이는 민족지처럼 보이지만 선언문처럼 느껴진다... 우리(인류학자)는 여성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물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여성이며 누가 그런 여성들인가를 물어야 한다(Vrasti 2008, 209).

브래스티는 인로의 연구에서 군사화된 여성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들의 삶에 대한 친착이 부재하고 이들이 희생자로 전제된 채 묘사되었다고 비판한다. 언급한 것처럼, 브래스티는 정치민족지 관점에서 인로의 연구를 살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원인을 인로가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여성주의 민족지일지라도 이야기는 있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없는 상황은 자기도취적 나르시시즘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이 비판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다고

해도 타자화된 지식을 생산할 가능성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 인로의 연구가 자기도취적 나르시시즘을 보인다고도 생각하지 않지 만 여성들 묘사에 대한 브래스티의 지적은 타당하다(Vrasti 2008; Kim 2013a, 30).²⁾ 관련하여 여성의 행위성(agency)에 대한 인로의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2000년에 쓴 *Maneuvers*에 (후술하고 있는 한국 캠프 타운을 설명한) 캐서린 문(Katharine Moon)의 연구(1997)를 인용하면서 여성들이 조직한 자치회가 자치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주체적이지 않았다고 부연한다(Enloe 2000, 91-92). 행위성과 저항 문제는 사실 인로뿐만이 아니라 성매매 문제와 관련된 자발과 비자발, 저항과 억압, 미시적 저항자와 구조적 희생자의 이분법의 틀을 고민하는 많은 여성주의자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여성들을 행위자라고 하기에는 구조적 변수들(빈곤, 군사주의, 양 국가의 가부장적 정책 등)이 강제한 부당함이 두드러져서 저항 양식을 설명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여성들을 수동적인 피해자라고 규정하기도 어려운 딜레마가 있기 때문이다.³⁾

3. 한국 기지 정치 사례 연구: 캐서린 문

인로의 주장을 한국 사례에 적용한 연구가 정치학자 캐서린 문의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1997)이다. 한국에서는 2002년 『동맹 속의 섹스』로 번역되었는데 국제관계에서 한국

2) 대체로 피주둔국의 기지 주변 성 산업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기술하고 살피는 연구에서 유사한 어려움이 나타난다. 예컨대 *Let the Good Times Roll: the Sale of Women's Sexual Labor around U.S. Military Bases in the Philippines, Okinawa and the Southern Part of Korea*는 1992년 출간되었는데 필리핀, 한국, 오키나와의 기지 문제와 주변 여성들의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을 인터뷰와 참여관찰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장점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비가시적인 존재와 사실을 가시화한다는 것이다. 부당함에 대한 폭로 전략으로서 다만 가시화가 될 때 가시화되는 여성의 삶이 화석화되고 군사주의 비판에 대한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 학계에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참여관찰이나 인터뷰를 통해 여성들을 연구할 경우 더욱 고심하게 된다.

3) 이 문제는 자치회 문제와 함께 아래 III장 2절에서 설명한다.

캠프타운의 맥락을 설명한 저서로서 1970년대 한국의 미군 기지를 분석한 글이다. 약소국(한국)과 강대국(미국)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특정 맥락에서 교섭의 정치를 통해 이뤄진다는 이론을 배경으로, 기지촌 정화운동(1972-1977년)을 사례로 성별화된 일개인의 삶과 국가정책의 연관을 설명했다.

그녀의 연구는 국내외에서 1970년대 캠프타운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양 정부가 체계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실증 자료로서 학계 및 대중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이 연구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다. 문의 연구는 실증 자료를 뒷받침한 ‘이론적 연구’라는 점이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부분이 간과된 채 국내외에서 다소 기능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학계의 기지 정치와 마찬가지로 이론을 추구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졌지만 다른 설명과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누가 어떤 시각과 방법으로 연구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 지식의 주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례를 통해 어떻게 기지 정치에 대한 ‘이론’을 추구했는가는 1997년 저서를 요약한 “Prostitute Bodies and Gendered States in U.S.-Korea Relations”(K. Moon 1998)에 보다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 글은 어느 국가든 캠프타운 성 산업은 남성의 본능이나 필요악이 아니라 양 국가의 교섭과 정책의 산물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고 적고 있다. 요점은 한국 정부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기지에 대해 국가 대 국가 안보의 문제라기보다 미군의 문제 혹은 미군과 성 산업 관련 여성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자유방임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공산권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관여(commitment)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기여를 한 것이 한국 정부로 하여금 캠프타운 문제에 대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요구와 불만을 저항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는데, 1969년 아시아에서 미군의 철수를 결정한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과 이로 인한 미군의 감소와 베트남으로부터 한국군의 철수가 변수로 작용하여 캠프타운 문제에 대해 미군이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대해 정화운동 등 적극적인 요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사령부 입장에서 정화 노력은 워싱턴의 정책입안자들을 염두에 두고 조직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한국에 계속 관여한다는 상징이기도 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정화 정책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commitment)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인 외교, 지역주민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필사적인 호소였다(K. Moon 1998, 151).

문이 설명하고자 한 것은 캠프타운 정화운동이라는 사례를 통해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두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했는가 하는 점이다. 국제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약소국과 강대국이 전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녀의 연구는 미군 관련 성 산업이나 캠프타운 여성의 문제가 여성들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의 결과라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그동안 여성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사사화되었던 논의들이 국가, 정책, 법과 같은 구조와 제도의 수위로 전환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요컨대 캐서린 문의 연구는 1970년대 풍부한 역사자료 및 인터뷰 작업을 바탕으로 개인의 삶과 국가정책과의 연관성, 닉슨 독트린과 기지촌 정화운동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국가정책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귀중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매체나 연구에는 두 경향이 있다. 한 경우는 (1970년대의) 역사적 사실을 인용할 때이고 또 다른 경우는 캠프타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할 때이다. 두 경우 모두 캐서린 문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설명한 연구의 이론적 전제가 쉽게 간과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그녀의 이론적 전제와 사료 기술이 몇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문의 닉슨 독트린=독립변수, 기지촌 정화운동=종속변수라는 분석틀이, 국가·사회와 같은 추상적인 존재에 대한 비판이라는 성 산업에 대한 대중적인 연구 경향과 겹치면서 한국 예외주의(Korean exceptionalism)의 경향을 낳는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닉슨 독트린과 기지촌 정화운동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캠프타운의 내적 동학과 긴장이 부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즉 문은 기지촌 정화운동의 중요한 다른 원인이었던, 흑인계 미군과 한국인과의 인종문제, 미군과 한국 여성의 높은 성병율, 휴식과 휴양(Rest & Recreation) 시설의 비위생적 상태, 암시장 등의 문제점 또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닉슨 독트린이라는 변수가 독립변수로 설정되어 있어 다른 요인들이 등가적 변수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군의 존재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가부장적 성 산업 정책이 마치 한국에서만 두드러진 것처럼 이해된다. 예컨대 여성주의 입장을 가진 지멜리스(Zimelis 2009)는 문 의 연구를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다.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가 다른 사회그룹과 계급을 활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 연구의 목적은 민족주의가 특정 사회그룹(성 산업 종사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Zimelis 2009, 35). 지멜리스는 박정희 시기의 민족주의를 전체 한국 민족주의로 일반화하고 있다. 대체로 영어권 학계에서 문 의 연구가 한국의 가부장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자료로 재생산되고 있는데, 언급한 것처럼 이때 미군의 역할은 비가시화되고 한국의 가부장적·모순적 정책만 두드러지는 불균형을 낳고 있다. 그리고 문 의 연구에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인로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에 대한 재현 문제이다. 그녀는 여성들의 저항과 주체성의 문제를 (1970년대의) 집단적·가시적 저항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녀의 연구 분석 시기인 1970년대는 캠프타운의 경기가 가장 활성화된 시기로서 여성들의 집회와 자치회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시기이기도 했다(각주 4번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 저항 형태는 저항의 한 양상이지만 유일한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저항에 대한 인식은 일상적이며 지속적인 억압과 폭력의 속성을 간과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김미덕 2007). 이 문제는 아래 III장 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III. 국내에서의 논의

1. (명명의 정치를 통해 본) 대중적 인식과 반미 민족주의 정서

한편 피주둔 국가인 한국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는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복잡하다. 미국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미국과의 동맹관계, 주권,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문제, 기지 이전, 반환 공여지 활용, 그리고 미군 주둔에 따르는 많은 쟁점들(환경오염, 성 산업, 지역공동체 발전, 아메라시안, 미군 범죄 등)을 포함한다. 시기적으로 1945년 미군 주둔이 시작된 이후 1960-1980년대까지 캠프타운이 가장 활성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는 민주화와 함께 반미운동이 가시화되면서 주한미군의 범죄, SOFA의 불공정함, 주권 훼손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민족주의 시각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래 군사주의와 젠더 연구의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대중적으로나 학계에서 캠프타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역할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식생산 측면에서는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캠프타운 여성의 자서전과 증언록의 출판이 증가하였고, 캠프타운에 대한 공간학적 연구의 증가가 눈에 띈다.

캠프타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인식은 무관심과 관련 여성들에 대한 혐오나 비난 혹은 동정이다. 무관심의 배경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전쟁억지를 위해 미군 주둔이 필요하고 이때 군을 위한 여성들의 존재는 필요악으로서 구체적인 특정지역에서 소수의 여성이 일한다면 전체 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 시각은 나쁜 여성과 좋은 여성, 중산계급 여성과 노동계급 여성의 구분이라는 가부장적 사고가 전제되어 있고 성 산업 문제에 대한 고민은 크게 없다. 캠프타운 여성의 삶은 성매매와 외국 군인과의 관계에 국한되어 이해되고 혐오나 비난, 빈곤한 여성에 대한 동정 또한 드물지 않다. 이 중에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 수 있는 한 지표로서 호칭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호칭과 명명(naming)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인식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욱이 기지촌 여성이라는 명명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힘들다. 캠프타운에서 작업한 한 영상감독은 ‘기지촌 여성’이라는 호명(interpellation)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기지촌 여성은 그냥 기지촌 여성이라고 하고 농촌에 가면 아주머니들,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농민 여성이라는 말은 안 붙이잖아요. 청계천이나 어디서 가서 일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아주머니들이라고) 부

르잖아요. 근데 기지촌은 ‘특별하게’ 불러주는 거죠. (필자) 왜 특별하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그냥 아줌마라고 불리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지촌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야지 호명이 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표시가 되고, 어쨌든 호명이 될 거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안에 기지촌이라는 것은 미군들을 상대하는 ○○들의 집단,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그 공간을 외부에서 이데올로기 작용을 너무 심하게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기지촌에 사는 사람들이)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만의 문화적인 특징이나 그런 걸 만들어 갔을 것이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고(2006년 8월 인터뷰).

성 산업 관련 여성을 표현하는 많은 호칭이 있으며 미군과 관련해서는 미군 위안부, 유엔마담, 특수업태부, 양부인, 양공주, 윤락여성, 매춘 여성 등이 있다. 이 호칭들은 모두 성 산업 종사 여성에 대한 폄하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 남성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비하와 경멸이 담겨 있다. 필자가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2006년) 호칭에 대한 예상치 못한 두 발견이 있었다. 하나는 현재는 성매매라는 용어가 보편적이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도 학술연구 논문에서도 윤락여성이라는 표현이 만연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제 강점기에 사용된 위안부가 미군 상대 위안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Kim 2009, 1장). 전자의 경우 언어의 정치적 속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고, 후자의 경우는 일제 강점기 위안부라는 용어에 익숙했기 때문에 미군과 관계된 캠프타운에서 일한 여성들에게도 위안부를 사용하는 것이 낯설었지만 위안부라는 군사주의의 여성 노동의 활용과 의도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다른 용어들보다도) 성 산업 종사 여성들을 좀 더 존경의 의미가 담긴 성 노동자로 부른다 할지라도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주장(Sleightholme and Shinha 1996)에 동감한다. 어떠한 호칭에도 호명이 되는 이들의 열망, 기쁨, 고통을 느끼는 사람, 노동자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성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의도와 본질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성매매와 관련

된 성과 노동의 이분법 자체가 논쟁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누가 그 질문을 제기하며 구분의 기준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필자는 과거 성 산업에서 일했고 캠프타운에서 거주하고 있는 30여 명의 여성(40대에서 70대에 이름)을 인터뷰했다. 그 여성들은 사회가 자신들에 대해 어떻게 호명하고 인식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성과 노동의 이분법으로 자신들의 생애를 정리하지 않았다(Kim 2009, 2장, 4장; 최현숙 2013). 필자는 구술생애를 분석하면서 이들의 생애는 외부의 시선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외국 군인과의 관계와 성매매 자체가 아니라 일생에 걸친 비공식적 노동의 연장선 속에서 캠프타운에서의 일과 미군과의 관계(결혼, 동거, 이혼 등)를 해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달러 경제를 통한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로 여성들의 노동자 정체성을 주장하기보다 일생에 걸친 여러 비공식 노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성(가난한 노동자라는 적극적 동일시, 물리적으로 빈곤한 여성 노동자이지만 동일시하지 않으려는 탈동일시, 혹은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았다고 요약할 수 있는 적응 등)을 수행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Kim 2009, 4장).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입장이 반미 민족주의 정서이다. 이 시각에서 여성은 경멸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약소국) 한국 남성이 지키지 못한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의 누이, 어머니 이미지로 생산된다. 이 입장은 외국 주둔의 존재가 민족적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노동계급) 여성은 이러한 감정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 논쟁하는 상징적 장이 된다. 즉 국가 대 국가의 대결의 장에서 피식민국 여성은 남성의 보호대상으로서 상징적·물리적 기표로 활용된다(김미덕 2007).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캠프타운 여성에 대한 재조명이 사회적으로 이뤄진 계기는 1992년 동두천에서 발생한 윤금이 사건이다. 미군 병사에 의한 한국 여성의 죽음은 살해의 잔혹성과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기소유예 문제 때문에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설립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민족주의적 시각의 주장자들은 기존에 동맹국이었던 미국의 역할을 의문시하고 한국 주권의 문제, 기지 환경오염, 미군 범죄, 불공정한 SOFA, 지역공동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아메

라시안(Amerasian)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2000년대 중반 이래 여성주의 학계 및 대중적으로 캠프타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동시에 여성들이 ‘국가에 의한 정치적 희생자’라는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민족주의 시각과 여성주의 시각이 겹쳐진 지점이기도 하다. 대중적인 인식의 결은 일련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섹스동맹’ 지지촌 정화운동」(2003/02/09), SBS 「그것이 알고 싶다-‘지지촌 할머니, 누가 그들에게 낙인을 찍었나?」(2006/10/21) 등이 있다. 전자의 방송은 캐서린 문(1997; 1998)의 주장이 그대로 재현되면서 캠프타운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 역할이 강조되었고 후자는 캠프타운에서 거주한 고령의 여성들의 현재의 빈곤한 삶과 어려움을 조망하고 있다. 모든 방송은 캠프타운의 역사와 문제를 조명하면서 사회적 쟁점을 만들었는데 의의가 있다. 외피적 기술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여성에 대한 재현에 있어서 현재 여성들의 어려운 생활과 고령이 겹쳐지면서 감상주의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여성들의 삶을 현재의 빈곤과 고령으로 요약하면서 이들을 ‘정치적’ 희생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여성들의 전 생애가 단편적으로 임하면서 희생자로 규명되는 계급화된 지식의 함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Kim 2009, 4장). 활자화된 지식이든 영상 작업이든 문제를 가시화하되 타자화하지 않는 드러냄의 언어와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국내에서의 논의에서 부연할 사항이 있는데 II장 미국 학계 부분에서는 정치학계의 논의가 중심인데 반해 III장 국내에서의 논의는 담론 중심이다. 이러한 전개 of 가장 큰 이유는 반미 민족주의 시각의 ‘학술’ 논문은 흔치 않고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는 여성주의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보다 기본적으로는 학술 논의 이외에도 과거에 비해 국가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이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학술적 논의는 두 경향이 눈에 띈다. 바로 후술하고 있는 지식생산 주체로서 캠프타운 여성이 등장한 것과 ‘공간학적 관점’에서 캠프타운을 접근한 연구들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 후자의 연구 경향은 특정 공간의 지정학적 속성을

전제한 채 캠프타운의 역사 및 변화를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기지 정치에 대한 사실주의 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즉 기지를 둘러싼 미국과 한국의 공간학적 불균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의 특징에 따른 구성원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표적으로 안미정(2013)과 차철욱(2011)은 부산 하야리아 부대의 역사와 공간 변화에 주목하고 있고 오미일·조관연(2010)은 부평 미군 기지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공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캠프타운의 지정학적 변화·정책 등에 대한 또 다른 수위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속 논의로 두고 그것의 중요성만 언급하고자 한다.

2. 저항 문제와 캠프타운 여성의 지식 생산자로서의 등장

여성주의 학계에서 미군 기지에 대한 연구와 인식은 기지 주변의 성 산업과 여성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언급했던 윤금이 살해 사건은 대중적인 반미 의식과 함께 여성주의 학계에서 이 문제를 민족주의의 입장과 구별되는 여성의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학술 논의는 성 산업 자체에 대한 오랜 논쟁의 연장선에서 전개되었는데, 성과 노동의 이분법 문제, 성 산업의 노동환경, 국가의 성매매 정책, 여성들의 생활에 대한 초점을 포함하고 있다(조형·장필화 1990; 이희숙 1991; 오지연 1997; 이나영 2007). 그리고 캠프타운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고 있는데(K. Moon 1997; 이나영 2007; S. Moon 2010; 야마시타 영애 2012; 송연욱·김영 2012), 예컨대 최근(일본 학자) 야마시타 영애(2012)는 1950년대 이래 성매매 정책을 살피면서 특정구역의 설치(대부분 미군기지 주변), 국가 주도의 자치회 조직, 기지촌 정화운동, 기생관광 정책 등의 사안을 살피고 있다. 2000년대 이래 여성주의 학계에서 과거 연구 경향이 유지됨과 동시에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 또한 맞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캠프타운 성 산업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동시에 가난하고 불쌍한 기지촌 할머니 담론이 등장했고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성 산업 연구의 고전적 연구 패턴에서 벗어나 구술과 인터뷰에 바탕을 둔 생애사 분석 연구, 자서전, 증언록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김정자·김현선 2013; 이나영 2011; 최현숙 2013; Kim 2009; 김미덕 2013b).

구체적으로 먼저 캠프타운에 대한 국가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기지촌 운영은 한·미 합작품, 국가가 성매매 여성 보상해야”(세계일보, 2012/10/28), “국가가 관리하던 기지촌 여성들, 이제와 방조하나”(여성신문, 2012/10/26), “박정희 시대의 속살은... 국가가 포주”(오마이뉴스, 2012/8/26). “유신공주는 양공주 문제엔 관심이 없었다”(한겨레신문, 2012/11/30) 등이 있다. 여성 신체의 의료화, 국가의 역할, 보상 문제, 그리고 그동안 무가치하게 여겨진 여성들의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 또한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필자의 현장조사에서도 발견한 것인데(김미덕 2013b, 51-53) 법과 정책으로 구현되는 국가 폭력에 대한 비판이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노동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서 나타나는 전제는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가 포주라는 표현은 (등록과 정기 검진 등의) 여성 신체의 의료화 등의 가부장적 통제에 대한 비판인데 이는 비단 한국에서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 신체에 대한 통제 및 계급화된 노동의 활용은 가부장적인 국가에서 가장 전형적·고전적·일반적 통제와 규제의 방식이다(Kim 2009, 2장; 김미덕 2013b). 실제 대영제국 시기 피식민국에서 실시되었던 정책의 일환으로서 초반 남성의 신체를 점검하던 것을 점차 여성의 신체를 검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사실이 있다(Enloe 2000, 55-65). 무엇보다도 과거 1970년대의 통제만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통제 양식은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안태운 2012). 따라서 필자가 다른 곳에서 밝혔듯이(2013b), 특정 여성 노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국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국가가 포주라는 언술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정치적 희생자라거나 혹은 국가경제에 기여한 애국자로 정체화하는가 하는 문제 또한 살펴야 한다. 여성들의 캠프타운에서의 일을 노동으로 간주하고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여성들은 자신들을 국가경제에 기여한 애국자라는 해석은 자신들의 주어진 삶을 그냥 열심히 산 것에 대한

과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김미덕 2013b). 보상 담론이나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 논의는 여성들의 노동이 성과 관련되어 폄하되거나 혹은 비공식 노동에 종사한 이유로 공식 경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데서 나온 인정(recognition) 정치의 일환인데, 좋은 의도와 현실의 괴리를 살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여성의 삶에 대한 해석에서 신시아 인로와 캐서린 문의 논의에서 언급했던, 주변부 사회그룹에 대한 논의에서 겪게 되는 딜레마 중의 하나인, 어떻게 여성을 타자화시키지 않으면서 그들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빈곤, 어려운 노동환경, 신체의 통제로 집약되는 국가정책은 고통, 억압, 폭력, 가부장제, 군사주의 등의 언어 이외 다른 언어로 이들의 삶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억압적 상황들이 상세하게 기술되는 한편 생애에 대한 분석이 잘 시도되지 않는 다. 필자가 이 분석의 어려움과 부재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문제의식 때문이다. 하나는 과연 여성들 스스로는 어떻게 자신을 설명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의도한 것은 아닐 지라도)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면서 부당함을 제기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기 때문이다. 관음주의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단순 서술을 넘어서서 이론적 분석을 통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가 주목한 쟁점은 여성들의 저항 양식이다. 대체로 학계에서 주변부 사회그룹의 저항은 다음과 같은 가시적·집단적인 형태로 이해되고 있다. 첫째, 비정부기관(NGO)을 포함한 운동 단체 형성 및 운동이다(정희진 1999). 운동단체 형성은 운동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성들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효과적인 저항의 한 자원이다. 캠프타운에서 물질적, 법적, 의료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제, 양식,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의 저항과 등치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양자의 유기적이고 필연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캠프타운 운동 단체의 역사가 그 곳에서 생활한 여성들의 운동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캠프타운 여성들의 자치회 조직 또한 대표적인 저항 양식으로 꼽힌다. 자치회의 내용은 회원제 운영, 여성들의 권익보호 등으로 장소, 시기, 자발성의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정부가 주도하여 자치조직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1953년에도 있고(춘천의 협심회, 조선일보, 1953/02/13) 이후 용산 지역(조선일보, 1962/06/27)에도 있었다. 자발적인 경우는 1970·80년대 캠프타운 산업이 가장 활발한 때 많이 등장했다. 이태원의 백합회, 동두천 민들레회, 평택의 국화회 등이 있다. 실제로 자치회를 통해 여성들의 권리 주장이 전개되기도 했고 동시에 한국 정부와 미군에 의한 통제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조선일보, 1962/06/27; 김정자·김현선 2013, 121). 셋째, 여성들의 시위이다. 실제로 1970년대 캠프타운이 가장 번성할 당시 여성들은 포주의 횡포와 미군의 노동 환경에 대한 통제에 대한 문제로 집회와 시위를 했다.⁴⁾ 그런데 이러한 가시적 형태의 저항 양식에 대한 이해는, 그렇다면 1970년대 이전과 이후에 여성들의 저항은 부재했는가라는 매우 단순한 질문을 낳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필자는 자치회 결성이나 가시적인 항의 형태가 아닌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모순적인 진복 양식을 주목하였다. 캠프타운에서 미군과의 이혼을 위해 재판을 진행하는 한국 여성과 아이 아버지인 미군에게 양육권과 양육비 지원을 위한 청구소송을 하는 필리핀 여성의 생활을 분석하고 저항자 대 피억압자라는 이분법이 무화되는 일상생활을 조명함으로써, 그 이분법의 한계를 지적하였다(Kim 2009, 5장; 김미덕 2013b).

한편 2000년대 이후 나타난 변화 중에 두드러진 것이 캠프타운에서 일한 여성들의 자서전이나 증언록의 등장이다. 이는 여러 수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자서전(김연자 2005), 연구자와 증언자와의 대화를 통해 생애

4) “(부산) 텍사스촌 ○○들 빠라 뿌리고 시위”(양공주 50여 명이 약질업주의 착취 행위를 규탄하는 데모를 전개하였다. 조선일보, 1960/06/22); “왜 그들은 데모를 했나?” (이태원 한남동 일대 양공주들의 실태 생계 위한 울부짖음-미군의 취체에 걸려 연행하다 도망을 치다 사망한 강복희 씨의 죽음을 계기로 도망을 치다 사망한 강복희 씨를 계기로, 취체가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했다. 동아일보, 1960/10/27); “위안부 70여 명 데모, 인권유린 부대장 규탄” (“10일 오후 4시 30분쯤 시흥군 안양읍 미군 모 병기대대 정문 앞에서 위안부 70여 명이 인권유린 부대장을 규탄하라는 등 플래카드를 들고 투석을 하는 등 데모를 벌이다 경찰과 헌병들의 제지로 1시간 만에 해산됐다. 위안부들은 부대장 샘슨 중령이 지난 5일 전 위안부의 사진을 부대 내에 게시, 미검자와 수검자를 표시하겠다고 검진 현장에 나타나 사진을 찍으려는 데서 발단, 소동을 빚은 것이다.” 조선일보, 1970/02/11).

사를 엮은 경우도 있다(김정자·김현선 2013; 최현숙 2013). 그리고 인터뷰와 구술생애사를 연구자가 분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Kim 2009; 김미덕 2013b; 이나영 2011). 2005년 한국 캠프타운에 대한 지식과 운동에 큰 역할을 한 김연자의 자서전이 출판되었다. 생애와 함께 운동가로 활동하면서 느낀 단상과 스스로 말하기와 재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또한 기록되어 있다. 2013년에는 김정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운동가인 김현선이 캠프타운의 이동 경로를 따르면서 대화 형식으로 작업한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미군 위안부 최초 증언』이 출판되었다. 중간 중간 시각적 자료들과 관련 정책, 역사에 대한 설명을 통해 캠프타운의 구체적인 생활과 어떻게 국가정책이 여성의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글쓰기 측면에서는 역사적 사료를 통한 검증의 노력과 증언의 생생함에서 전달되는 지식의 인식론적 권위를 느낄 수 있다. 최현숙(2013)이 엮은 『천당허고 지옥이 그만큼 칭하가 날라나?』에는 세 명의 구술자가 등장하는데 그중의 한 구술자가 캠프타운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구술자인 김미숙은 고향인 평양을 우연히 이탈하게 되고 남편이 자살한 이후 어렵게 외아들을 목사로 교육시킨다. 아들이 그녀가 캠프타운에서 일한 것에 대해 회개하라고 하는 가부장제의 이중성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김미숙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다른 회개라면 할 거 많아두, 난 그 회개는 안 나와, 나도 예수 믿지만, 난 그런 게 별루 죄라고 생각 안 돼. 여자 혼자 벌어먹고 사느라 한 일인데, 내가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저 목사 나온 돈이 어디서 나온건데?”(최현숙 2013, 101; 김미덕 2014, 439). 이는 성적으로 방종한 여성이라거나 피해자로만 규정할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다른 해석을 보여준다.

증언과 구술생애사 작업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여성들의 증언 작업으로 확장된 것처럼(Yang 1998)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시적인 지식의 생산 주체가 누구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하는 것과 타자가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김미덕 2014, 437-440). 다만 구술생애사, 자서전 등의 양적 팽창과 무관하게 이러한 작업의 정치적 성격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소수자의 구술생애사와 자서전이 지식생산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들의 역사를 ‘아래로부터 쓰는’ 기록, 복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까닭은 기록되지 않았던 이들의 역사 복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발화와 쓰기 자체가 ‘참 지식/앎’에 대한 권위를 갖는다는 전제 때문이다. 즉 경험을 한 이가 직접 쓰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고 참된 지식이라는 경험과 지식 간의 비례 관계에 대한 전제가 있다. 그러나 스스로의 발화와 이를 바탕으로 외현된 지식이 반드시 참된 지식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이는 어느 계층의 자서전과 증언 기록도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형태의 지식도 사회적 산물로서 자서전 또한 자신이 현재 구성하고자 하는 생애를 재구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Behar 1993; 김미덕 2013a). 여성들의 증언, 구술생애사, 자서전은 타자(외부 연구자)를 통한 작업보다 현저히 드물고 대중적이지 않다. 따라서 스스로의 말하기 작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그러한 발화가 이뤄질 때에도 작동하고 있는 정치적 속성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달리 해석될 것을 염려하거나 재현 자체의 무의미함(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재현을 거부하는 것, 혹은 재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재현되는 양식 모두가 정치적·역사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IV. 요약 및 결론

이 글에서 필자는 미군 캠프타운을 둘러싼 기지 정치에 대한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글은 필자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 주장/쟁점, 방법을 기준으로 한, 중범위 수준의 문헌 연구이다.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은 영어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큰 차이와 고유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래 미국의 사회과학계에서 기지를 둘러싼 미군과 피주둔 국가의 관계를 설명한 기지 정치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는 사회 현상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여러 설명 변수를 통해 이론화하려는 시도로서, 이때 피주둔국이 주둔국인 미국과 마

찬가지로 행위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연구와 크게 다르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대체로 피주둔국의 내부 역학이 생략된 아쉬움이 있다. 즉 피주둔국 국가 간 비교가 기능적인 수위에서 분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 산업 종사 여성의 피해 등이 강조되면서 피주둔 국가의 가부장성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영어권 여성주의 학계에서 미군 기지 및 주변 성 산업의 존재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양 국가의 협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신시아 인로와 이를 한국 사례에 적용한 캐서린 문의 연구가 국내외 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국 사회에서 이 주제에 대한 보편적인 경향은 반미 시각과 여성주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대중적으로는 외국군과 성 산업 자체에 대한 혐오, 배척, 무관심이 있다. 반미 민족주의 시각은 미군 주둔의 성격을 문제 제기하고 미군이 물리적, 상징적 차원에서 야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비판한다. 여기서 캠프타운 여성은 불쌍한 한국 여성이거나 미국 제국주의의 희생양이다. 이 시각의 문제점은 1990년대 이래 여성주의 시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말 그대로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 캠프타운 여성은 주체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한국 남성의 주권/자존심 회복을 위해 도구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한편 여성주의 학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그 역사가 깊다. 캠프타운 성 산업에 대한 기원을 살피거나 관련 쟁점들(성과 노동의 이분법, 어려운 노동 환경, 성매매 정책, 구조적 억압과 개인의 행위성 문제)과 국가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1970년대의 기지촌 평화운동을 비롯하여 캠프타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역할이 부각되면서 성 산업 종사 여성들이 국가의 희생양이라는 담론이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캠프타운의 성 산업 문제가 일 개인(여성)의 책임으로 돌려진 것에 비하면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여성들이 군사주의, 가부장제, 빈곤의 희생양이었다면 현재는 국가의 체계적인 정책에 의한 희생양으로 변하였을 뿐 여성들의 삶에 대한 계급적 이해는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성 산업에 대한 국가의 가부장적·모순적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들이 정치적 희생자라는 담론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김미덕 2013b, 51-53). 필자는 이들의 생애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성매매 자체, 외국 군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일생에

거친 비임시적 노동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Kim 2009, 4장). 더불어 집회, 시위나 자치회 등과 같은 가시적·집단적 저항 형태에 대한 주목은 그 중요성이 두말할 것이 없지만, 동시에 비가시적이고 일상적인 억압과 저항의 양상 또한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김미덕 2013b).

한편 한국 사회에서 2000년대 이래 자서전, 증언, 구술생애사를 통해 캠프타운 여성들이 지식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증가하였다. 주변부 사회그룹이 자신의 삶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기록의 복원이라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자기발화 작업 또한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정치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김미덕 2013a). 또한 캠프타운에 대한 공간학적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특정 공간에 주어지는 정책, 담론, 구성원에게 끼치는 영향 등을 살피면서 기지 정치에 대한 사실주의 연구에 큰 기여를 한다.

미군 기지, 캠프타운 성 산업, 관련 여성들은 논쟁적인 지식 경합의 장이다. 누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장에서 기록하고 주장하는가에 따라 상충되는 지식들이 공존한다. 한국 사회에서 미군 기지의 정치적 성격은 대체로 합의되고 있는 듯하다. 즉 미군 주둔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쟁이 있을지라도 성 산업을 포함한 미군 기지의 관리가 양국의 정책에 의해 조율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캠프타운 성 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성 산업 문제의 복잡한 성격 때문에 찬반 논쟁, 국가정책, 경제적 측면 이상의 논의를 진척시키기 가 무척 힘들기 때문이다. 한 예로 필자가 2013년 6월 한 학회에서 이 주제로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제안 받은 세션이 ‘여성 세션’이었다. 캠프타운 ‘여성’에 대한 논의임으로 큰 문제가 없는 듯한데, 이는 다른 한 세션의 주제인 ‘노동’ 세션과의 구별 속에서 다른 의미를 갖는다. 노동 세션은 여성 노동자와 젠더중립으로 가정된 남성 노동자에 대한 발표로 구성되어 있었고 필자가 속한 세션은 ‘여성들에 대한’ 발표로만 구성되었다. 이는 젠더 범주를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노동과 젠더를 분리하는 사회과학계의 전형인데, 캠프타운의 여성은 캠프타운이나 성 산업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일생에 걸쳐 (비공식 노동에 종사한) 노동

자라는 사실(Kim 2009, 4장) 자체가 상상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특정 주제가 특정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재현되고 지식으로서 회자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Steedman 2000; 김미덕 2013a). 주류 담론, 지식 생산자의 입장과 지식이 유포되는 장과 청중, 방법의 특성 등에 의해 다양한 지식이 충돌하고 경쟁한다. 이 글은 이러한 경합의 장을 중범위 수준에서 살펴봄으로써 지식의 정치적 속성을 살펴보았다. 공존하는 주류, 비주류, 진복의 지식을 발굴·발견 및 재해석하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미덕 (2007). “한국문학에서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아메라시안에 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제2호, pp. 7-54.
- _____ (2011). “지역연구 지식의 재구성: 방법론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0권. 제2호, pp. 127-154.
- _____ (2013a). “인류학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46집. 제1호, pp. 3-41.
- _____ (2013b). “미군 캠프타운 (한국) 여성의 행위성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46집. 제3호, pp. 41-82.
- _____ (2014). “구술의 힘.” 『실천문학』. 봄호, pp. 437-440.
- 김연자 (2005). 『아메리카 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 전까지 악을 쓰다』. 서울: 삼인.
- 김정자·김현선 (2013).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서울: 한울 아카데미.
- 두레방 (2007).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실태조사』. 경기도: 두레방.
- 백재희 (2000). “외국여성의 한국 성 산업 유입에 관한 연구: 기지촌의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연옥·김영 편 (2012). 『군대와 성폭력』. 박해순 역. 서울: 선인.
- 안미정 (2013). “부산 미군 하야리아부대의 공간적 변용과 의미.”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6권. 제1호, pp. 265-293.
- 안태윤 (2012). 『경기도 기지촌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 실태분석』. 경기도: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 야마시타 영애 (2012). “한국의 성매매 정책의 개관.” 송연옥·김영 편. 『군대와 성폭력』. 박해순 역. 서울: 선인, pp. 331-379.
- 오미일·조관연 (2010). “부평 로컬리티와 이주민.” 『인문과학』. 제46집, pp. 93-124.
- 오지연 (1997). “미군 기지촌 매춘여성들의 주변적 문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나영 (2007).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1960).” 『한국여성학』. 제24권. 제3호, pp. 5-48.
- _____ (2011). “기지촌 여성의 경험과 윤리적 재현의 불/가능성.” 『여성학논집』. 제28집. 제1호, pp. 79-120.

- 이희숙 (1991). “기지촌 율락여성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희진 (1999). “죽어야 사는 인권: 기지촌 여성운동, 1986-98.” 『한국여성인권운동사』. 서울: 한울출판사, pp. 330-349.
- 조형·장필화 (1990). “국회 속기록에 나타난 여성정책 시각: 매매춘에 대하여, 1948-1989.” 『여성학논집』. 제7집, pp. 83-111.
- 차철욱 (2011). “하야리아부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역사적 경험과 로컬리티.” 『지역과 역사』. 제28호, pp. 319-346.
- 최현숙 (2013). 『천당하고 지옥이 그만큼 칭하가 날라나』. 서울: 이매진.
- Bacevich, Andrew J. (eds.) (2003). *The Imperial Tense. II*: Ivan R. Dee.
- Baker, Anni P. (2004). *American Soldiers Overseas*. London and CT: Praeger Publishers.
- Behar, Ruth (1993). *Translated Woman: Crossing the Border with Esperanza's Story*. MA: Beacon Press.
- Blaker, James R. (1990). *United States Overseas Basing*. NY: Praeger.
- Calder, Kent E. (2007). *Embattled Garrisons: Comparative Base Politics and American Globalism*.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ong, Terence (2007). “Practicing Global Ethnography in Southeast Asia.” *Asian Studies Review* Vol. 31, pp. 211-225.
- Cooley, Alexander (2008). *Base Politics: Democratic Changes and U.S. Military Bases*.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Enloe, Cynthia (1983). *Does khaki Become You?: The Militarization of Women's Lives*. MA: South End Press.
- _____ (1990). *Bananas, Beaches, and Bases: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2000). *Maneuver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Militarizing Women's Liv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rkavy, Robert (2005). “Thinking about Basing.”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58. No. 3, pp. 13-42.
- Höhn, Maria & Seungsook Moon (2010). *Over There: Living with the U.S. Military Empire from World War Two to the Present*. NC: Duke University Press.
- Kelly, John D. (2003). “US Power, After 9/11 and Before It: If not an Empire, then What?” *Public Culture*. Vol. 15. No. 2, pp. 347-370.

- Lee, Nayoung (2006). "The Construction of U.S. Military Camp Town Prostitution in South Korea: Trans/formation and Resistance." Ph.D. Diss. University of Maryland.
- Lutz, Catherine (ed.) (2009). *The Bases of Empire: The Global Struggle against U.S. Military Posts*.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Lutz, Catherine (2006). "Empire in Details." *American Ethnologist*. Vol. 33. No. 4, pp. 1-19.
- Kim, Miduk (2009). "Nationalist Narratives and Everyday Subversions: Korean Women and Military Men in U.S. Camp towns." Ph.D. Diss., Rutgers University.
- McCaffrey, Katherine T. (2002). *Military Power and Popular Protest: The U.S. Navy in Vieques, Puerto Rico*.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Moon, Katharine H. S. (1997).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캐서린 문 (2002). 『동맹 속의 섹스』. 이정주 역. 서울: 삼인).
- _____ (1998). "Prostitute Bodies and Gendered States in U.S.-Korea Relations." Elaine H. Kim & Chungmoo Choi (eds.). *Dangerous Women: Gender and Korean Nationalism*. London and NY: Routledge, pp. 141-174.
- Moon, Seungsook (2010). "Regulating Desire, Managing the Empire: U.S. Military Prostitution in South Korea, 1945-1970." Maria Höhn and Seungsook Moon (eds.). *Over There: Living with the U.S. Military Empire from World War Two to the Present*. NC: Duke University Press, pp. 39-77.
- Rodriguez, Luís & Sergey Glebov (2009). *Military Bases: Historical Perspectives, Contemporary Challenges*. Amsterdam: IOS Press.
- Sanders, C. T. (2000). *America's Overseas Garrisons*. NY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eol, Donghoon (2004). "International Sex Trafficking in Women in Korea: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untermeasures."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10. No. 2, pp. 7-47.
- Sleightholme, Carolyn & Intrani Shinha (1996). *Guilty without Trial: Women in the Sex Trade in Calcutta*. Calcutta: Street.
- Steedman, Carolyn (2000). "Enforced Narratives." Tess Cosslett ed. *Feminism*

- and Autobiography: Texts, Theories, Methods*. London and Ny: Routledge, pp. 25-39.
- Sturdevant, Sandra & Brenda Stoltzfus (ed.) (1992). *Let the Good Times Roll: the Sale of Women's Sexual Labor around U.S. Military Bases in the Philippines, Okinawa and the Southern Part of Korea*. NY: New Press (산드라 스토티반트 (2003). 『그들만의 세상: 아시아의 미군과 매매춘』. 김윤아 역. 서울: 잉겔).
- Vine, David (2009). *Island of Shame: the Secret History of the U.S. Military Base on Diego Garcia*.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Vrasti, Wanda (2008). "The Strange Case of Ethnograph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ium* Vol. 37. No. 2, pp. 279-301.
- Wright, Melissa M. (2006). *Disposable Women and Other Myths of Global Capitalism*. NY: Routledge.
- Yang, Hyunah (1998). "Re-Membering the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Dangerous Women: Gender and Korean Nationalism*. *Dangerous Women: Gender and Korean Nationalism*. Ed. Elaine H. Kim and Chungmoo Choi. NY: Routledge, pp. 123-139.
- Yoo, Cholin (1993). "Life Histories of Two Korean Women Who Marry American GIs." Ph.D. Dis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Zimelis, Andris (2009). "Human Rights, the Sex Industry and Foreign Troops: Feminist Analysis of Nationalism in Japan, Korea and the Philippines."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44. No. 51, pp. 52-71.
- 「이제는 말할 수 있다-섹스동맹 기지촌 정화운동」. MBC. 2003년 2월 9일.
- 「그것이 알고 싶다-기지촌 할머니, 누가 그들에게 낙인을 찍나?」. SBS. 2006년 10월 21일.
-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2012년 10월 28일; 『여성신문』. 2012년 10월 26일; 『오마이뉴스』. 2012년 8월 26일; 『한겨레신문』. 2012년 11월 30일.

| 논문투고일 : 2014년 02월 28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03월 05일 |

| 게재확정일 : 2014년 03월 14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1 (2014)

A Critical Review on Base Politics of the U.S. Military in South Korea

Mi-Duk Kim

(Research Professor, 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ans Univ.)

This paper examines studies on base politics of the U.S. military bases and camptowns.

Since the mid-2000s, studies on base politics(the relationship of U.S. military overseas to the host nations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bases) have appeared in U.S. academia, questioning the imperialist nature of U.S. military overseas. In feminist academia, political scientists Cynthia Enloe and Katharine Moon have greatly influenced the discussions and critique of gendered militarism. They demonstrate that the existence of U.S. bases overseas is the product of political negotiation between the U.S. military authorities and the host governments, and thus the sex industry around camptowns is not based on male soldiers' sexual nature but negotiations between two governments.

In the meantime, the question of U.S. military bases in the Korean society has been discussed since 1945. The issues surrounding the question have included sovereignty, environment contamination, the unequal nature of SOFA, sex industry, and offsprings between soldiers and Korean women. In terms of perspective, there is indifference, or a dominant idea in which the station of U.S. soldiers is considered as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and the sex industry around the

camptowns is a necessary evil. There are also the anti-U.S. nationalist perspective and feminist perspective. Whereas anti-U.S. militarism has been evolved as kind of social movement during the 1990s, since the 2000s the systemic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camptowns and the regulation of women's bodies has intensively been discussed. And it is noticeable that the camptown women more directly participate knowledge production as the form of oral life history, testimony, and autobiography. The increase of studies on geopolitical aspect of camptowns is another noticeable development. By exploring the contesting knowledges on the camptowns and U.S. military bases, I demonstrate the subjectivity and historicity of knowledge.

- Key words: U.S. Bases in South Korea, Women in Camptowns, Base Politics, Cynthia Enloe, Subjective Knowledge